M: Interviewer

A: Interviewee

M: 어…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A: 네!

M: 예, 안녕하세요. 우선 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컴퓨팅 사고 능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답변은 완전히 비밀로 유지될 것이고 당신의 답변은 오직 이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기록할 때는 당신의 이름이 아닌 코드로 대체될 것입니다. 인터뷰 결과는 온전히 주어질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인터뷰 기록들은 당신에게 공유될 수 있으며 당신이 피드백을 원할 시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한 시간 가까이 걸릴 것이며, 당신이 원하시면 이 인터뷰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한 시간은 교수님이 대충 측정하신 시간이고,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던간에, 들으신 대로, 제 연구를 위해 인터뷰 기록을 사용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A: 네.

M: 인터뷰를 녹음해도 될 까요?

A: 네, 가능합니다.

M: 알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끝나셨죠?

A: 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M: 그러면 이번 학기를 보내면서 뭔가 본인 스스로 바뀐 게 있는 것 같나요?

A: 네 바뀐게 전 있는 것 같습니다.

M: 어떻게 바뀌었죠?

A: 어, 고등학교때보다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삶의 방향성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M: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방향은 어디가 될 까요?

A: 어, 원래는, 어, 쉽게 말하면은요, 꿈이라는게 딱히 없었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학교에 와서 전공과 과목을 배우면서, 적성에도 좀 맞는 것 같고, 이러면서 열심히, 좀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맞춰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서 또 자격증을 딴다 그러니까, 좀 삶의 방향성이 제시된다는? 그런 느낌이죠.

M: 아,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신입생 캡스톤 강좌 있죠?

A: 네.

M: 그 하산 교수님이 하는? 그 강좌가 다른 강좌와 다른 점이 있나요?

A: 네, 다른 강좌랑 다른 점은 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M: 어,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 까요? 몇 개?

A: 일단은 뚜렷하게 보면 일단은 이 과목은 등급이 없어가지고요, 예 학점이라고 해야하나?

M: 그러면 패스 페일이네요?

A: 네, 패스 논패, 네, 두개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M: 그러면은, 이 강좌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A: 이 강좌에서는요, 어, 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요, 어, 그냥 크게 배운거는 없고 그냥, 옛날에 제가 원래 아두이노 키트 같은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만져봤었는데요, 그 아두이노 키트를 다시 만지게 된, 그런 느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인터넷으로 아니, 줌 오프라인으로 듣기에는 너무 안좋은 수업인 것 같아서, 많이 느낀게 없는 것 같습니다.

M: 줌 온라인으로?

A: 네, 이 수업은 온라인으로 들으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딱히 하는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두시간 수업인데 한 시간 만에 끝내주시고.

M: 음,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이번 학기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입생 캡스톤 강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첫인상이 어떻게 들었나요? 어떤 첫인상이 들었나요?

A: 첫인상이라는게?

M: 첫 느낌?

A: 느낌? 그냥 별 느낌 없었고요, 그냥 다른 강좌랑 비슷했다고 생각했습니다.

M: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번 강좌에 프로젝트 있었죠, 본인 거?

A: 네.

M: 그 본인 프로젝트 접근 방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접근 방법이라 하면은, 본인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그런거요.

A: 저는 일단은, 일단은 실생활에, 제가 직접 쓰고 싶은거를 만들고 싶었구요.

M: 아, 예.

A: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단은 실생활에서 뭐가 지금 필요한가 생각하다가 거기서 이제 무드 등?을 생각했구요.

M: 무드 등이요?

A: 네. 그래서 저는 무드 등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M: 그 그러면 그 프로젝트 설계하는 거, 무드등 설계하는 건 어려웠어요?  
A: 무드 등 설계하는거는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led 전구와 그, 밝기 조절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되가지고, 원래 근데 제가 조금 알고 있는게 있었어가지고, 그거 알고있는 거를 토대로 했습니다.

M: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만드는 것도 뭐 어렵진 않았겠네요?

A: 예 지금, 근데 아직 다 만들진 않았는데,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 교수님께서 메이킹 영상도 찍으라 하셔가지고요, 유튜브 브이로그 처럼.

M: 아 그거 뭐 저희도 작년에 그 뭐 그 뭐지? 그 레고가지고 했는데.

A: 아, 네.

M: 그것도 영상 찍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는 그룹프로젝트라서, 혼자서 하니까 힘들겠어요?

A: 어, 혼자서 하니까 힘들죠. 저도 개인프로젝트보다 그룹프로젝트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저는.

M: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인, 결과는 안 나왔죠? 아까 말하는거 들어보니까.

A: 어떤 거요?

M: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결과요.

A: 네.

M: 아하,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봤을 때 만족하나요 본인 프로젝트에?

A: 음, 네. 만족합니다.

M: 그러면은 10점 만점에서, 몇 점 정도 주고 싶어요?

A: 저요?

M: 예.

A: 저는… 엄, 6점 주고 싶네요.

M: 어… 본인에게 조금 엄한 거 아니에요?

A: 아유, 어… 본인에게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면은 너무 어, 저는 그 겸손,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 제 스타일이네요. 저도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A: 저 자신에게는 후하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M: 그게 맞- 저는, 그런 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 까요?

A: 부족한 점이요?

M: 예.

A: 음, 지금 생각하기에, 어, 부족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꼽자면은- 어-

M: 하나 꼽자면은?

A: 네,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걸 진짜 개인 말고 팀플로 했으면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 까 싶습니다.

M: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하는 도중에 막 주제를 바꾸거나 그러고 싶었던 적은 없나요?

A: 네, 한 번 바꿨습니다.

M: 아, 그러면 이게 바꾼 거에요?

A: 원래는, 그러니까, 주제를 바꾼거라기 보다는 큰 주제를 바꾼게 아니라 세부, 안에 좀 내용을 바꾼 건데요.

M: 네.

A: 원래는 약간, 어… 커다란, 약간 네온 간판 이런 걸 만들고 싶었는데요.

M: 네.

A: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그릇을,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저, 아 이거는 내가 너무 오버했다. 나는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기숙사를 살고 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친구가 무드등을 쓰는데 너무 부러운거에요. 근데 그거를 돈주고 사기엔 아까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를 아두이노로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드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M: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좌의 교수라면 본인이 뭘 바꾸고 싶나요? 혹시? … 여보세요?

A: 저요? 아,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M: 아 예.

A: 아, 저는 제가 교수라면은 저는 바꾸고 싶은거, 어… 바꾸고 싶은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괜찮습니다.

M: 알겠습니다.

A: 수업도 되게 많이 부담되지도 않고.

M: 그러면은, 이게 조금 넘어가서, 예, 아두이노를 쓰셨죠?

A: 네.

M: 예전에 썼던거라고 했었죠?

A: 어, 아두이노 고1때 학교 방과후로 한 번 해봤었습니다.

M: 그러면은 아무래도 익숙하니까 뭐, 마음에 들죠?

A: 어, 네. 그 나쁘지 않습니다.

M: 아하. 만약에 아두이노랑 라즈베리 파이랑, 그 두 개를 다 같이 써서 프로젝트 두 개를 한 학기에 다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A: 아니요, 저는 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M: 하하, 그렇죠?

A: 네.

M: 그러면은, 일단 뭐 그러면은 또 넘어가서 의외로 좀 빨리 끝낼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강의 듣기 전에 프로그래밍 할 줄 알았나요?

A: 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요, 하 진짜 진짜 기본적인거. 그냥 엄청 기본적인거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 아두이노로 그 때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었거든요 고1때?

M: 네.

A: 자율주행 자동차도, 진짜 그 정해져있는, 누가 주신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 거라서, 원래 진짜 어 무슨 느낌이냐면요, 진짜 백지에다가, 선 하나 그은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원래 아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M: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 아두이노로 프로젝트 하면서 뭐 프로그래밍 해 봤나요 직접?

A: 어, 네.

M: 그러면은, 해봤을 때 뭐 코딩에 뭐 문제가, 에러가 있었나요 혹시?

A: 네. 에러가 한 번 떴었습니다.

M: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A: 저, 그냥 계속 해 봐서, 원래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안될- 될 때까지 해보는 거. 그거 좋아해서요. 될 때까지 했습니다.

M: 해보니 되죠?

A: 네? 네 되요.

M: 기분 좋았겠어요?

A: 아, 기분요? 기분 좋죠.

M: 하, 그러면은 수학 계산 같은 것도 했나요? 혹시? 막 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A: 아뇨, 수학계산 할일이 없었어요.

M: 그러면은,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쉽다고 생각해요?

A: 아뇨, 결코 쉽진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건 없습니다.

M: 아, 뭐… 예, 알겠습니다. 하하하.

A: 아, 너무 오버했나요?

M: 아뇨, 뭐… 세상에 뭐 쉬운 게 있긴 있잖아요? 뭐 엄밀히 말해서?

A: 쉬운 게 있긴 있는데 이건 그렇게 쉬운 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M: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앞으로 잘 하게 될 것 같아요? 본인이?

A: 저요? 계속 노력하는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M: 아, 그렇죠. 그러면은, 장래에 아무래도, 아까도 말하셨지만은 뭐, 그 방향성을 찾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럼 장래에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나요?

A: 프로그래머가, 저는 할 수 있으면은 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가지를 아직, 여러가지 하고싶은 게 여러가지 지금 몇 개 있어가지고요, 제가 근데 만약에 내년에 이제 제가 비트 과정을 또 수료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러가지를 좀, 다른 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에 군대를 갔다오게 되면은 저의 뚜렷한 장래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네요.

M: 아 그, 앞으로 미래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A: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주시니.

M: 그- 그- 그룹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하셨었죠?

A: 네.

M: 뭐 특별한 이유가… 그, 아무래도 결과가 더 잘 나올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A: 네. 일단은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M: 네.

A: 첫 번째는요, 그, 솔직히 사람들끼리 막 그런 말이 있지만요, 배가 뱃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끼리 머리를 좀 맞대면은 좋은 결과물도 나오고 퀄리티도 좋아지고, 그리고 저가 혼자 하는 것 보다 좀 같이하는게 수고가 좀 덜어서 편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 그게 또 하나 하나 이유는요, 안 하는 팀원이 있는데요 항상 보면은, 약간 빌런들이 있는데, 속된 말로 하면은? 근데 그 빌런들을 말을 정신교육을 시켜가지고 말을 듣게 해서 프로젝트 참여하게 하는 거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되게 즐겨합니다.

M: 그러니까-

A: 보통 다 하더라고요. 그럼.

M: 그러니까- 사공이 많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럿이 하면은 낫고, 또 그, 방금 말했다시피, 조금 말썽부리는 팀원이 있으면은, 같이 설득해서 으쌰으쌰 해서, 같이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신다?

A: 네, 어, 말을 정말 잘 순화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M: 정리는 가끔가끔 해야죠. 정리는. 하하. 그러면은 그룹에 몇 명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나요?

A: 두, 두 세명이요.

M: 두 세명이요. 저희 때는 네 명이었는데.

A: 어우, 네명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M: 아, 그렇나요?

A: 세명이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M: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딱, 그거, 누구 하나 노는 사람 없이, 다 열심히 하면은, 다 열심히 해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올 그 정도 인원수가 딱 두세명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A: 그렇죠. 딱, 이제 세 명 그 정도 돼서 이제, 잘 프로젝트 잘 끝마치고 끝나고 뒷풀이하는게 그거 ?이지 않습니까.

M: 근데, 어, 일단 개인 프로젝트였잖아요? 근데, 프로젝트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과 의논해본 적이 있나요?

A: 어, 네 있습니다. 지금도 잘 의논하고 있습니다.

M: 아, 그러면은-

A: 서로-

M: 예, 말해보세요.

A: 서로 어려운 게 있으면 도우자는 주의라서, 주변에 같은 수업을 듣는 애들끼리 좀 도움을 서로 청하고는 합니다.

M: 그러면 친구들이랑 했군요?

A: 어, 네. 그죠.

M: 어, 그러면은 의논하고 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다가왔어요?

A: 네? 한번만 더 말해주세요.

M: 그러니까, 그, 그, 의논,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련해서 생긴 문제를, 타인과 의논을 해보면은, 그 문제가 의논 후에 어떻게 다가왔어요?

A: 음, 일단은, 뭐, 때로는 큰 도움이 안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 저에게 이제 그 솔루션을 준다고 그러면은 저는 되게 좋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고 그 친구가 예를 들어 피드백도 해주고 이러면은 저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저한테는.

M: 그렇군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개발하면서 제일 컸던 문제는 뭐였나요?

A: 어, 제일 큰 문제요? 일단 너무 귀찮았습니다.

M: 귀찮음. 그거는-

A: 너무, 너무 할 게 많았다, 이 이외에도? 그래서, 너무 약간 과제 쌓여, 쌓임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찮았습니다.

M: 그러니까, 그러면, 그 프로젝트 자체의 문제보다는 학교 생활에서 과제가 너무 많이 주어져서, 그것 때문에 바빠져서, 그게 문제였다. 그로 인해 귀찮음을 느꼈다.

A: 아, 정리 진짜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M: 하하, 그런가요? 그럼 저야 감사하죠, 그렇게 얘기해주시니까.

전 정리를 진짜 못해서요.

M: 그러면은 뭐, 그, 무드 등을 만들면서 기계적인 문제는 없었나요?

A: 네. 되게, 되게 뭐지? 아마추어가 쓸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재료들을 주셔가지고,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다.

M: 아하. 그러면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나요?

A: 약간,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뇌가 좀 하얘지면서, 하, 갑자기 하던 것이 멈춰집니다.

M: 아, 그, 저랑 약간 또 비슷하시네.

A: 그 상태로 좀 하기 싫어가지고, 침대에 누워버려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되곤 합니다.

M: 그러면 뭐,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도 해 본 적 있어요?

A: 네, 맨날 합니다.

M: 아, 맨날? 하하하.

A: 제가 원래 충동적이어가지고요 좀.

M: 예, 그러면, 그래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A: 네 하곤 있죠. 때려치고 싶지만.

M: 그러면 그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어떻게 마음 정리를 해요?

A: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M: 아,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죠 보통?

A: 일단요? 가장 보통,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술을 먹어야죠.

M: 아하.

A: 아니면은 이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취미생활을 하는 거나. 근데 가장, 술을 먹거나 게임하는 것 보다는 취미생활을 하는게 가장 건전하고, 가장 뇌 건강에 좋고, 가장, 그리고, 나중에 프로젝트 진행에도 가장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M: 뭐, 술은 뭐, 뭐 드시나요?

A: 저요? 어, 저는 초록 병 좋아합니다.

M: 아하, 저는, 맥주랑 소주중에 고르라면은 맥주인데, 저는 좀 쎈 거를 좀 먹습니다.

A: 섞어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M: 그, 보드카라던가, 위스키라던가.

A: 아, 보드카, 위스키라던가요? 아 인터뷰에서 이래도 되나요?

M: 아, 뭐, 그럴 수 있죠. 얘기도 나누고. 나도, 저도 뭐 이런 거 뭐, 뭐라고 해야하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할게?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하면서, 얘기라도 하면서, 코로나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얘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는 거죠.

A: 아 저도 보드카 둔산동가서…

M: 그래도 뭐, 일단 계속 하죠! 어, 그러면은 이 강의하면서, 성적이, 성적이라기 보다는 프로젝트가, 실패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든 적 있나요?

A: 음- 실패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실패하거든요.

M: 아하, 그러면은, 동기부여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A: 동기부여요?

M: 하기싫고 때려치고 싶고 그럴 때, 그럴 때도 동기가 생기잖아요 결국에는? 뭐 스트레스 풀고 나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계속 그 프로젝트에 그거, 프로젝트에 계속 몰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동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A: 그, 되게, 아 이게 동기부여라 하면은, 동기부여라 하면은요 일단은 때려치고 싶을 때, 아 딱 이제 침대에 한 번 누으면요, 아, 내가 이걸 때려쳐봤자 뭐하냐, 아 이렇게 누워있어봤자 나한테 득이 되는 것도 없다. 그런 생각으로 다시 이제, 책상에 앉아서 프로젝트에 몰두를 하죠.

M: 아,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다잡네요?

A: 네, 그죠.

M: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 생각에, 그룹으로 했었다면은, 다른 그룹원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쉽게 나눴을 것 같아요? 혹시?

A: 어, 그죠. 비교적이요. 비교적 괜찮았을 것 같아요.

M: 그러면은, 이 다음으로는 본인 생각에 본인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같아요?

A: 음, 저는 못하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른 애들에 비하면?

M: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A: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살아온, 지금 20년 동안 살면서, 그냥 뭐라해야하지? 비교를 당한적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항상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M: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직업 생겼을 때 본인이 문제 해결 능력, 이게 도움될 것 같아요? 나중에 직업 생겼을 때?

A: 문제 해결은, 네. 직업 생겼을 때도 그렇고. 계속 생활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M: 그러면은 도전하는 건 혹시 좋아하시나요?

A: 오, 도전하는 거요? 저는 도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안전을 추구합니다.

M: 아하, 그러면은 안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을 안 좋아한다.

A: 아, 도전하는 거. 그러니까, 도전하는 것을 싫어, 그러니까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무리한 도전을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M: 그러니까 도전도 도전 나름이다.

A: 네, 도전 나름이지만 너무 무리한 도전은 하기 싫다.

M: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견적 보고 들어가시는 거네요?

A: 오, 정답입니다.

M: 사람이 견적을 봐야지. 그쵸? 그러면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죠? 본인 스스로를. 본인 프로젝트 말고.

A: 저요?

M: 예.

A: 어, 아 근데.

M: 뭐 충분히 성공한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이번 강의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서 좋은 점수를 땄다던가?

A: 아, 그냥 무난하게, 나쁘지도 않고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M: 그럼 10점 만점으로는, 뭐 한 얼마정도 될까요?

A: 이건요? 이건 7점 하겠습니다.

M: 아, 아까보다 낫네요.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프로젝트를 계획에 맞춰서 따라갔어요?

A: 어, 잠시만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이게 잘 안들려서.

M: 아, 그럴 수 있어요.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프로젝트를 계획에 맞춰서 따라갔어요?

A: 어, 아니요? 계획… 을 애초에 제가 좀 안 세워보고 해가지고. 원래 약간 좀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한 번에 몰아서 빨리빨리 하고 약간 그러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런 건 있었습니다. 안 까먹으려고 노트에 써놓고, 어 언제 이걸 해야겠다.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막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진 않지만요.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 그러니까, 그러면은, 체계적으로 세우지는 않는데-

A: 네 맞습니다.

M: 그러니까 그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그렇게 계획은 짰다. 그 말씀이신가요 혹시?

A: 아, 네 정답입니다. 아 왜 이렇게 그, 제가 말하지 못하는 말을 너무 잘 정리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M: 그 정돈가? 하하. 아, 뭐 고맙습니다. 그, 그러면은, 그래도 계획은 있었단 말이죠?

A: 아, 계획은 있죠.

M: 그러니까 조금, 완전 엄격하지 않은 계획.

A: 네, 맞습니다.

M: 그러면은 그 계획을 일단은 따라갔을 것 아닙니까?

A: 그죠.

M: 그러면은 혹시 방해되는 거라도 있었나요?

A: 방해되는 거요? 다른 과제요.

M: 다른 과제. 과제가 다른 과제를 방해하네. 그것 참 안타깝네요.

A: 갑자기 이제 그거 과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과제를 내주시는데, 근데 그 과제가 만약, 이거보다 내야 되는, 그 뭐지?

M: 그, 데드라인.

A: 마감기간이, 예. 마감기간이 짧으니깐 큰일나죠. 그거를 먼저 해야하니깐. 그런게 걸림돌이죠.

M: 그게 혹시 같은 교수님이 내준 과제인가요?

A: 아뇨 다른 교수님이요.

M: 다른 교수님이? 아하. 알겠습니다. 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창의적인 사람 같아요?

A: 저요? 저는, 되게… 저는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M: 그러면 예를 들 수 있을까요? 혹시 살아오면서?

A: 저요? 저는 남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하려하긴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아까 말로는 무리한 도전을 싫어한다 하지만, 항상 말도 안되는 말과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렇게 저는 성공한 적이 많아서.

M: 그, 무리한 도전은 리스크가 없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도전이네요.

A: 아니요, 근데, 리스크가 조금 있는?

M: 조금 있는?

A: 뭐 예를 들어서, 남들이 뭐, 하지 않으려는 것들? 근데 되게, 아 그 되게 창의적인 것 저도 좋아해서요. 아 저는 그런거 싫어합니다. 되게 약간 그 단어가 기억이 안나는데, 되게 식상한거! 식상한거 싫어합니다.

M: 식상한 거.

A: 항상, 그- 예. 어, 그죠. 예. 그런거. 식상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의적이라고 생각할- 창의적인 편이라고 생각하네요.

M: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몽상하는 건 좋아하세요? 몽상?

A: 몽상이요? 망상은-

M: 여러가지, 망상도 그 한 축에 낄 수 있죠, 몽상 안에. 그러면 그런 건 좋아하시나요 혹시?

A: 에,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요, 많이 하지 않으려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 망상의 세계에서 살 위험이 있어가지고요.

M: 아, 그러니까 현실에 기반을 둔 그런 거를 좀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 조금 하지 않으려 한다.

A: 네. 제가 그랬던 적이 한 몇 년, 한 몇 달 동안 망상에 살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하지 않으려 합니다.

M: 알겠습니다. 뭐, 거의 다 되가는데, 일단 계속 해보죠.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A: 네, 시켜주시면 적극적으로 하죠.

M: 아, 그러면은, 막, 그 아무래도 한 번 프로젝트를 해 봤으니까 좀 더 쉽게 다가오는 그런 건가요?

A: 음, 네!

M: 음, 좋네요. 그러면은,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을 의향이 있습니까?

A: 음, 질문 한 번만 더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중간에 또 끊겨가지고.

M: 아 예.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을 의향이 있습니까?

A: 아, 네 있습니다.

M: 그러니까 이 강의 전 보다 지금이 좀 더 커졌다 그 말씀이신가요 혹시?

A: 네, 맞습니다. 비교적 커졌죠.

M: 아무래도 뭐, 개인으로도 하기도 했고, 본인 자체도 그룹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니까.

A: 네 맞습니다.

M: 아무래도 이번 강의를 거치면서 더 그런 걸 절실하게 느끼신 것 같네요.

A: 네 맞습니다.

M: 네, 그러면은,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강좌가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한 것 같습니까?

A: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M: 그건 아닌 것 같아요?

A: 네. 조금 더 뭔가 제가 음 이 프로젝트에 좀 더 몰두를 했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많이 몰두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M: 그렇게 따지면은, 어… 이 강좌가 좀 본인에게 쉬웠다고 말 할 수도 있는거네요?

A: 아뇨, 쉬운 건 아닙니다.

M: 쉬운 건 아니었어요?

A: 근데 제가, 이 강좌를 그렇게 솔직히 다른 강좌보다… 솔직히 이것도 그렇게 열심히 안한 건 아닌데요, 다른 강좌보다 열심히 하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막 섣불리 그렇게 판단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수업을 제가, 이제 한 학기가 끝나가는데, 이제 16주차가 다 됐는데도, 저는 뭔가 제대로 이 강좌를 수료했다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서요, 제가 섣불리 답을 못하겠습니다.

M: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강좌를 수료했다면 무엇을 얻었을거라고 생각하나요? 제대로 수료했다면?

A: 음. 이 강좌를 근데 저는 수료했으면 이거에 대한 지식이 더 넓어지고, 뭔가, 아까 말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무슨 문제해결능력이나? 그 쪽도 늘어났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뭔가 이 수업, 조금 더 되게 열심히 들었으면 되게 도움됐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수업이 지금 모두 다 너무 약간 개판으로 들어가지고, 그게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전 학기도 마찬가지고요.

M: 이게 코로나가 참, 사람 인생을 참 좌지우지하고 막 그렇네요. 진짜.

A: 저도 솔직히 좀 화가 나죠.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나죠.

M: 그- 수능 칠 때도 뭐 있지 않았나요? 그 20학번?

A: 저 수능 칠 때는 코로나 없었죠.

M: 어, 아 그럼 지진은- 아, 지진은 아예 포항 쪽이지 참, 아닙니다.

A: 아, 포항 때? 그 때 전 고1이었습니다.

M: 에? 아이고 내가 세상에 얼마나 늙었노?

A: 19학번이라고 하셨죠?

M: 아, 나이는 26입니다.

A: 에? 19학번 아니세요?

M: 맞는데, 26입니다. 만으로.

A: 아… 만으로, 만으로요? 오호! 아, 그럼 군대도 갔다오셨겠네요?

M: 아 지금 예비군 4년차요.

A: 아, 어이구. 대학을 늦게 들어오셨구나.

M: 아, 저도, 히스토리가 있죠. 나름에.

A: 그, 저희 동기 중에, 지금 1학년인데 24살이신 분이 계셔가지고. 에, 그분도 곧 인터뷰 할 거에요.

M: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네요.

A: 네. 이제, 곧 그러면 둘이 이제 말 통하는게 되게 많을 거에요. 1학년인데 지금, 군대도 갔다오셨고, 1학년인데 24살이세요.

M: 어, 그러면 또 계속 하죠. 그럼,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강좌가 본인을 더욱 창의적으로 만들어 준 것 같나요?

A: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M: 엄,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혼합 수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느꼈나요?

A: 어 일단은 온라인 수업은 진짜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어우, 온라인 수업은 너무, 일단 온라인 수업 자체를, 자체가 너무 집중이 안 됐구요, 그리고 이게, 이 수업. 제 생각이지만 이 수업, 이 강좌는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M: 그렇죠. 그거는 뭐 아무래도 직접 만지고 만들고 그러는 수업이니까. 온라인 보다야 뭐, 만나서 오프라인이 제일 낫죠. 제가 생각해도.

A: 네.

M: 어,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혼합수업 때, 그 오프라인으로 나갈 수 있는, 나갔던 사람도 있고, 온라인으로 계속 참여했던 사람도 있고

A: 저는 나갔다 왔습니다.

M: 아 참석하셨군요. 그럼 교실에 가보니까 어땠어요?

A: 교실이요? 하, 이게. 이게, 약간 좀 이게 좀 액시던트인게요, 이게 교실을 가도 이게좀, 교실에 가서 안 온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온 애들 때문에 그 같이 컴퓨터를 켜서 줌 수업을 하니까 교실을 간 느낌이 안들었습니다.

M: 그렇죠. 저, 그, 그러면은 막, 거기서 학생들도 막 프레젠테이션이라던가 그런 걸 봐야되니까 아마 줌으로, 입장을, 아아, 줌으로 굳이 오프라인 까지 가서 줌으로 그거를 들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A: 네,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래도 교수님들 실물을, 교수님 실물을 보고, 그래도 뭔가 가서 아무리 줌을 이용하긴 했지만 가서 애들하고 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듣고, 그래도 뭔가 이게 처음으로 정식 대면수업을 해본 거니까, 그래도 좀 새롭긴 했죠. 그리고 끝나고 교수님이 밥도 사주셨고, 구조적으로 나쁠 수가 없죠. 밥을 사주면.

M: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학기랑 2학기 통틀어서 처음으로 가본 건가요? 혹시?

A: 아, 근데 교수님은 많이 뵀는데요, 수업은 처음 가봤어요.

M: 아하. 그러면은, 혼합수업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그러니까, 혼합수업이라는 포맷 자체는?

A: 네.

M: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혹시?

A: 더 하고 싶은 말이요?

M: 네.

A: 아, 이게 오늘 되게 뭔가 재밌었습니다. 그냥 되게 그냥 인터뷰라고 생각해서 뭔가 따분해서, 하, 빨리 끝내야지,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말을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M: 그렇게 말해주시면 감사하구요, 뭐

A: 어우, 제가 더 감사합니다.

M: 인터뷰가 재미 없으면은, 양쪽 다 지치거든요 솔직히.

A: 어, 네.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요 약간 그 뭐지 인터뷰.

M: 그냥 뭐, 그게 저는 그 인터뷰도 그 영어 수업 때, 영어 수업에서 작년에, 영어수업 들을 때 인터뷰도 하는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 찾아가지고 막 인터뷰로 막 여러가지 물어보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된 것 같네요.

A: 아, 그러시군요.

M: 확실히 코로나 전에는, 학교 자체도 막 여러가지로 막 하려고 하고 막 축제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정말 저도 그때는 대학교, 아 이게 대학교 생활이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A: 대학교를 어, 지금 만으로 26이라 하셨나요?

M: 어 정확하게는 대학교를, 이게 두 번째에요. 그 첫번째는-

A: 아, 그죠? 그런 것 같았습니다.

M: 에, 첫 번째는 따로 경상대로 가서 뭐 여러가지 했었는데, 그것도 그 때 마침 공무원 붐이 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하러 서울로 올라가다가 놀고 먹고 하다가 망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그 병역 치르고, 어찌저찌 하다보니까 다시 요쪽에 온 건데. 그래서 이게, 작년이 저의,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저의 첫 대학 생활이었어요.

A: 아.

M: 본인은-

A:??랑 뭔가 비슷하네요.

M: 본인은 조금 많이 즐기질 못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저도 들어요. 솔직히 지금-예?

A: 저는 궁금한데, 뭐가 즐길 게 뭐가 있었나요?

M: 아, 일단 축제가 있었구요, 아 축제 그 음식도 엄청 맛있구요. 그 다음에, 운동회도-

A: 아, 진짜 그거, 아 그거 진짜 운동회는 좀 해보고 싶었어요.

M: 아, 그래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초대잖아요? 지금 미래기술학부? 19학번이? 그래가지고 숫자도 적어가지고, 솔직히 줄다리기밖에 못했어요.

A: 아 그래요? 축구 못 했어요?

M: 에. 뭐, 숫자가 적어가지고.

A: 저 축구하고 싶었는데.

M: 아, 축구 근데 뭐 지금 뭐 1학년 2학년 합치면 아마… 그 외국인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축구는 할 수 있을 거에요. 만약에 코로나 풀리고, 체육대회 한다면. 하여튼 간에 그것도 있고, 축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컬쳐데이라고 그것도 진짜 성대하게 했거든요. 그 외국, 막, 외국 유학생들 많은 것 아시죠?

A: 네.

M: 그 외국 유학생들 나라에 있는 전통 음식들 다 만들어서 저 엔디컷 홀에다가 막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저는 꽤나 즐길 것 많았다고 생각 하는데, 하여튼 코로나 빨리 풀려서 후배들도 재밌게 학교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뭐, 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음. 아니, 근데, 되게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M: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밤 되시고,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네, 감사합니다.

M: 그러면 이제 인터뷰가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 감사합니다~